

董 讀

1987

地域文化・地域人情・地域情報

螢 嶺

43

1987年11月

● 特 輯 ●

文化의 달・全北文化를 생각한다.

李奉燮	李基班	洪顯植	金恩正
李起華	權喜德	李基柱	崔玄植
尹甲哲	安鴻燁	朴順浩	윤영근
金南坤	金基洪		

* 故郷을 생각한다 ————— 金宗殖 朴鍾杓

● 부록・全北女流文學 同人會 특선
〈詩・隨筆・콩트〉

□ 全北地方 文化暢達을 위한 綜合誌 □

8 卷頭隨想 / 文化行事와 祝祭는 구분되어야 한다...張明洙

■ 特輯 / 文化의 달 · 全北文化를 생각한다

10	特輯을 엮으며	編輯部
	* 전라예술제의 어제와 오늘	
14	25회 全羅藝術祭 야외와 옥내 행사로 연계	李奉燮
17	거도적인 全羅藝術祭로 승화	李基班
22	마을굿의 民俗藝術祭典이 되도록	洪顯植
29	全州 집권식 벗어난 향토예술로	金恩正
	* 영광의 대통령상 수상/농악	
34	全羅 左·右道 농악의 전통성 찾아 진흥	李起華
41	農樂경연 전통·창조적인 것으로 구분	權喜德
48	향토에 공헌했던 全州農高 농악 復活	李基柱
54	井邑農樂 재건에 행정지원 기대	崔玄植
59	扶安農樂의 보존과 진흥대책 시급	尹甲哲
	* 영광의 대통령상 수상/판소리	
64	소리꾼의 예우는 판소리 本鄉을 지키는 힘	安鴻燁
	* 영광의 대통령상 수상/민속	
70	蝸島 띠벳놀이 보존전수회관 건립문제	朴順浩
76	南原 三童굿놀이 기능보유자 지원 절실	윤영근
	* 바닥난 민속경연 자료	
82	전북民俗예술 보존의 연구단체 구성	金南坤
	* 영광의 대통령상 수상/연극	
87	全北의 演劇, 演劇人의 제도적 문제	金基洪
92	* 李鎬堉칼럼 / 人事文化	李鎬堉
94	* 鄉土史의 재정립 / 鄉土文化를 어떻게 볼 것인가	崔昌祚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

편집후기

◇...우리고장을 藝鄉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왜 藝鄉인가의 뿌리에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바꾸어 말하면 藝鄉을 보존하고 발굴해 나가는 바탕을 기르자는 뜻에서 문화의 달 전북 문화를 생각한다는 특집을 엮었다.

문화예술의 각 분야에 걸쳐 영광의 대통령상 수상의 어제와 오늘을 재조명하기 위해 정향제현에게 청탁을 한 바 있으나 사정에 의해 원고를 집필해 주시지 못한 분들이 있었어도 문제는 던져 보았다고 생각한다.

◇...고향을 생각한다는 욕구를 보내 주신 서울대학교 김종식 교수가 얼마 전에 87 대한수학회의 학술부문 본상을 수상하셨다. 축하를 드린다.

◇...전북 여류문학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인지「결」을 내놓자 정향의 문학 애호가들의 동인지 구입 구독신청이 쇄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이에 권말부록으로 애독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다.

◇...강암 송성용선생, 석전 황옥선생, 소남 이규진선생에 이어 또 아산 송하영선생께서 귀한 작품을 보내 주셨다. 노력 발간의 재정에 큰 힘이 되었다. 감사를 드린다. <宋>

蘆

嶺

第43號

1987年 11月

1987年 11月 2日 印刷 / 1987年 11月 5日 發行

《非 賣 品》

發行人 : 金 光 鎬
編輯人 : 張 明 洙

(「蘆嶺」編輯委員會)

印刷人 : 咸 清

文公部 登錄番號 : 바-962號 登錄日字 : 1981年 8月 10日

發行所 : 社團 全州文化院
法人

全州市 慶園洞 1街 58의 4 電話 7500

印刷所 : 鮮明印刷社 電話 0030-02878

● 本誌는 韓國圖書雜誌 倫理委員會의 雜誌倫理 實踐要綱을 준수한다.

99 * 我山 宋河英 先生の 뜻

* 故郷을 생각한다

- 103 다알리아의 꽃잎에 어둠이 내릴때 金宗殖
 106 고향은 자주 찾는이에게 포근히 대해줘 朴鍾杓
 109 * 時論 / 독서 교육과 독서 환경 尹伊鉉
 115 * 畫家가 가본 내 고장 山河 / 다가공원 李方雨

■ 主題있는 散文 ■

- 116 * 좋은 글귀풀이 / 忠 懇 柳豊淵
 117 * 우리글 우리글 / '안심'의 어원 崔昌烈
 118 * 醫境 / 으뜸가는 消化劑 柳承國
 120 * 生活과 宗教② / 圓佛教와 禪 金永錫

□ 連 載 □

- 122 * 全州風物記③ / 全州川邊 宋榮相
 126 * 續「나의 文學 60年」①⑨ 海剛日記抄 曹圭華

◇ 全北女流文學會 특선 ◇

□ 詩

- 132 泗沘城 이야기 金貞植
 133 능소화 핀 마을 金彩玉
 135 꿈의 제단 II 朴今禮
 136 불꽃의 序章 朴芝蓮
 137 枯 死 木 禹美子
 139 이제 나는 李海英
 140 추 억 全京子
 141 아이는 별이 되었다 黃榮順

□ 隨 筆

- 142 끊임없는 출몰 그 순환속에서 孔淑子
 144 마지막 큰 절 鞠明子
 147 노래에 대하여 金貞姬
 150 술, 그대에게 林情順
 152 푸른 옥반지 林情順

□ 콩 트

- 156 두번째 여름 金純英

욕탕은 붐볐던 것이다. 목욕은 피곤을 풀기 위해서 한다는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 수가 있었을까 생각되리만큼 목욕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다.

일단 목욕탕에 들어갔다 하면 손과 발이 굵게 주름이 잡히도록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 백번의 숫자를 세기도 했고 온 살갗이 벌게 지도록 자갈로 문지르기가 예사였다.

한때 목욕탕 주인들이 남자 손님보다 여자 손님은 물을 많이 쓰고 한번 들어가면 두어 시간씩 걸린다고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지금처럼 서서 물을 끼얹는 샤워시설도 안되었고 플라스틱 작은 물그릇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목욕탕에 간다고 하면 집안의 세수대야에 비누, 수건 등을 담아 가지고 갔었다.

그때만 해도 1년내내 목욕탕 문을 열어 놓고 손님을 맞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놓고 목욕손님을 받아들였다.

■ 사까린 냉차

목욕을 하고 나서 매점에 앉아 갖가지 청량음료를 시원하게 마시고 있지만 옛날에는 설탕물도 귀했다.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백설탕도 아닌 검정 설탕물을 한 대접 타 내놓는 집안도 드문 때였다.

대여섯살 먹은 아이들이 함부로 다루다가 빠질 우려가 있을 듯한 낮은 항아리에 그때도 귀했던 사까린을 탄 냉수장사 아낙네들이 간혹 눈에 띄었다.

목욕하고 난 후 목이 켄켄하면 그 사까린 장사 아낙네를 찾아가 휘휘 젖어 퍼주는 사까린 물을 한대접 사 마시던 일은 속이 후련할 정도로 상쾌했다. ■